송월문도회 경론대회
8일 성흥사 관음전서 개최



9월 8일 군산 성흥사에서 열린 경론대회 모습.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는 9월 8일 군산 성흥사 관음전에서 제1회 송월문도회 경론대회를 개최했다.

20여 송월문도회 스님과 30여 재가불자 등이 동참한 이날 경론대회에는 정읍 보정사 보현 스님의 주제발표 '반야심경에 스며든 신심에 대해'에 이어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문화공연 펼쳐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 마련



법능 스님이 노래하는 모습.

전남 화순에서 소아암 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범능 스님(불지불교문화원 원장)은 9월 5일 화순 만연사(주지 자공)에서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 마련을 위한 불교문화공연을 펼쳤다.

1000여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연은 가수 이동원, 불교음악가 김무한, 만연사 비로자나 합창단, 홍순지, 부루나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범능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소아암 환우들은 지금 현재도 병실에서 힘겹게 병마와 투병하고 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십시일반 모여 환우들에게 큰 믿음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불자들의 자비공동체 모임인 화순전남대병원 보안회에 전달돼 소아암백혈병 환우들에게 지원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로 격려하며 전법의 길로 나가자"
팔재계 수계 실천대법회, 524명의 신규포교사 · 21명의 전문포교사 탄생



9월 5~7일 김제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봉행된 '팔재계 수계 실천대법회' 모습.

"신 · 구 · 의 삼업으로 인한 업을 모두 참회하오니 모든 허물 사라져서 몸과 마음 건강하고 위험원수 사라지고 선업의 이익 나타나소서. 스님들이시여.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삼귀의와 여덟 가지 계를 받기를 원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계를 설해주십시오."

포교사단(단장 강홍원)은 9월 5~7일 김제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전계사로 '팔재계 수계 실천대법회'를 봉행했다.

포교사들이 지계를 점검하고 전법의지를 다지고자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의 오계(五戒)와 오후불식과 향락과 몸 꾸미지 않기,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않기 등의 세가지를 더한 팔재계수계 실천대법회는 올해로 7회를 맞았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0여 포교사들이 동참해 계성 스님의 특강과 8재계 수계법회, 보살 48경계와 <금강경> 및 <천수경> 독송, 108대참회, 촛불의식 등이 이어지며 철야정진 했다.

입재식에서 혜총 스님은 치사를 통해 "급변하는 포교환경과 많은 포교손길을 요구하는 포교 현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포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팔재계 수계산림을 통해 포교사 스스로 포교능력을 향상하고 서로 격려하며 전법의 길로 다함께 나가자"고 격려했다.

강홍원 단장은 "앞으로도 묵묵히 종단을 외호하며 일선 포교 현장에서 더욱 더 정진하는 전법의 선도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모범포교사 표창에서는 개인 임순덕(서울경기), 단체 강원어린이 청소년팀이 총무원장을 수상하는 등 개인과 단체부분에서 20명이 수상했다.

식전 행사로 열린 찬불가 경연대회에서는 불보상에 대구경북단, 법보상에 대전충청단, 승보상에는 부산경남단이 수상했다.

한편, 신규포교사 품수식에서는 524명의 일반포교사와 21명의 전문포교사가 포교사의 다짐과 전문포교사결의문을 낭독하며 전법의지를 다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최고 관음기도 도량 만들 것"
향일암 황금단청 대웅전 낙성식 봉행

4대 관음도량 중 하나인 여수 향일암(주지 원문)에 황금단청으로 장엄한 대웅전이 9월 5일 낙성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명선 스님과 화엄사 대중스님들, 김성곤 · 주승용 국회의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명선 스님은 법어에서 "향일암은 관음기도 도량으로, 오늘 대웅전 낙성의 공덕으로 바다의 많은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바란다"며 "관음보살의 위신력으로 최근 '신종플루'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생명들이 완치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어에 앞서 성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끊임 없는 기도정진을 통해 향일암을 국내 최고의 관음기도 도량으로 만들것이며, 많은 불자들과 여수시민들이 편안히 찾아와 기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낙성한 대웅전은 국내유일의 황금단청 건물로 15억 원의 불사비를 향일암과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금해 이뤄졌다. 괴목을 사용한 대웅전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내5포 외7포의 다포양식 팔작지붕으로 부석사 무량수전 이후 괴목으로 거의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 최초의 법당이다.

종무소는 "황금단청은 순금을 금박 형태로 가공하여 대웅전 내외부에 붙이고, 채색 단청을 하여 지극히 화려하면서도 전통양식을 계승한 국내 최초의 단청방식"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
불교환경연대, 시민단체 및 불교단체 전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서 9월 9일 광주전남지역 각 대상자들을 찾아 쌀을 전하는 모습.

광주지역의 사회현안을 이끌고 나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자비의 쌀이 전달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9월 9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28곳과 불교단체 2곳에 1200kg의 쌀을 전달했다. 세 번째 맞는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는 2008년부터 매년 진행되어온 행사로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큰 호흥을 얻어 왔다.

이날 지원을 받은 곳은 박성두(민주노총광주본부),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박종익(청년단체협의회), 최경희(광주여성회), 김현석(실천연대), 김현웅(남총련 전남대총학생회), 황정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장애란(나주시농민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와 이주성(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문귀례(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불교계 단체활동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원자가 있는 사무실마다 찾아가 쌀 40kg씩을 전달했다.

법일 스님은 "사회단체활동가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주 천천클럽

'천원'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나누기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한 그루 나무가 숲을 만든다. 한 번의 손길이 이웃에게 웃음을 주며, 한 사람의 마음이 사회를 밝힌다."

1000명의 회원이 매달 1000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전주 천천클럽(회장 오종근 · 군산 호원대 교수)(사진).



천천클럽은 1999년 불자들의 모임인 '우리는 선우'의 30여 회원이 모여 작은 정성으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자 창립됐다.

회원들은 작은 힘을 합쳐 큰 힘을 만들며, 상(相)을 내지 않는 무주상보시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있다.

천천클럽의 활동은 회원들이 내는 '1000원'이라는 액수가 많고 적음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뜻과 정성을 모은다는 의미가 더 크다. 매달 1000여 명이 1000원을 보낸 힘이 모여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왔다. 이 중에는 출산비가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베트남 여인과 불구자식과 손자 둘을 부양하는 할머니, 소년가장 등이 혜택을 받았다.

천천클럽은 수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쌀과 지원금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그저 전달만 할 뿐 '천천클럽'이라며 자신들을 밝히지 않는다.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기 때문.

또, 군법당, 전주 소년원등 포교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나서고 있다. 전주 송천중학교(舊소년원) 법회를 주관해 왔고, 무료 경로식당 등 지역의 크고 작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남원 실상사에서 생산한 무공해 농산물 판매에 힘써온 것도 천천클럽의 역할이었다.

최근에는 전주 인근 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정기적인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개최해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네팔 등 타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을 살피고 있다.

천천클럽은 후원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준다. 매달 소식지도 '전주 우리는 선우'의 후원으로 발행할 만큼 투명한 관리에 힘써왔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천천클럽의 신행이 지역 사회에 소리 소문 없이 알려지면서 전북지역 사찰은 물론 타종교인들도 종교의 벽을 넘어 회원으로 가입하는 중이다.

이러한 천천클럽 회원들의 노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익산 제천 원주 경기도까지 전주 천천클럽을 벤치마킹한 천천클럽이 창립되고 있다.

오종근 회장은 "작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체계적이고 폭넓은 자비를 전달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작은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전국적으로 많은 천천클럽이 생겨 밝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천클럽 창립문의 : 오종근 회장 010-3652-8892 (063) 450-7315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수의 등 수납한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